

성장장애 한방치료 효과 입증

— 녹용 가미한 「성장단」 체질따라 처방 —

후천성 성장장애 증후군에 대한 한방의 치료효과가 입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오성원장(백상한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한국본초학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약 성장단이 흰쥐의 성장호르몬 분비촉진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에서 그동안 과학적 검증없이 임상에서 시행돼 온 한방의 왜소증 치료효과를 동물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배원장은 성장단을 복강내 주사로 1회 투여한 결과 실험용 쥐의 성장호르몬이 1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배원장은 『한방의 왜소증치료는 성장호르몬을 몸속에 직접 주입하는 양방의 치료원리와는 달리 약해져 있는 성장호르몬의 분비기능과 성장관을 자연스럽게 복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동물실험을 통해 10년간의 임상결과가 객관적으로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배원장이 개발한 성장단은 체질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소양인을 대상으로는 녹용과 십이미지황탕, 녹각, 동충, 하초, 지모, 황백 등을 넣은 성장단A를, 태음인에게는 녹용과 조위승정탕, 녹각, 익지인, 황련등을 넣은 성장단B를 투여한다. 배원장에 따르면 성장관이 열려 있지만 신장이 작아 유트로핀 사이트로핀 등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은 청소년들에게 성장단을 6개월 복용시킨 결과 신장이 평균 3~6cm 늘었다는 것.



△ 왜소증 한방치료기전이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아울러 설장관이 닫힌 것으로 판명된 청소년들도 1년이상 복용시킨 결과 다시 성장하는 임상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치료효과는 치료개시 2~3년 사이에 나타났으며 치료기간은 평균 1년2개월이었다. 배원장은 96년에도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빈번한 소화기질환,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영양장애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장애를 일으킨다는 임상연구를 학회에 보고했었다.*